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을 찾는 분들을 위해, 7월의 예배와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대표 기도문을 정리했습니다. 7월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고,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휴가와 이동이 많아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길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한 문장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아래 기도문은 상황별로 짧지만 흐름이 분명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기도 인도자의 입술뿐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같은 고백이 흐르길 바랍니다. 대표기도를 말으면 말이 길어질까 두렵고, 짧으면 부족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웅변보다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아래 문장들 가운데 마음에 닿는 부분을 골라, 우리 교회의 기도제목 한두 가지를 덧붙여 사용해 보세요. 기도 인도자는 크게 꾸미기보다 또렷하게 고백하고, 회중은 한 문장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표기도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됩니다. 또 따라 읽어도 좋습니다.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 1 주일예배 감사와 헌신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1)

주님, 7월의 첫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흩어져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주님보다 앞세웠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말과 판단이 옳다고 붙잡았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복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이 습관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열리게 하소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순종할 용기를 주시고,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실제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숫자보다 사람을, 성과보다 성결을, 편함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섬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닿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주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쓰이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 하나가 누군가의 회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주님은 중심을 아시니, 겸손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후의 일상까지 동행해 주시고,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 2 장마철 안전과 이웃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주님, 7월의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비가 내리고 길이 미끄러운 날들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출근길과 등굣길, 퇴근길과 귀가길에 사고가 없게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가정들을 기억합니다. 침수와 산사태, 강풍으로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복구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손 놓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실제로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을

준비하고, 취약한 이웃을 먼저 살피게 하소서. 불안이 커질수록 기도가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로 서로를 돕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비가 그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또렷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3 폭염 속 건강과 돌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5)

주님, 7월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소서. 지치기 쉬운 계절에 작은 불평이 커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날카롭게 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온유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여름 더위로 힘겨운 어르신들과 홀로 지내는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냉방이 부족한 가정,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건강이 약한 성도들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필요한 돌봄이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상도 지켜 주세요. 피곤함 때문에 대화가 줄어들고, 짜증이 쌓여 상처가 남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상태를 먼저 묻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계절의 고단함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물 한 컵이라도 함께 나누는 실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버티는 힘을 주시고,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힘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뜨거운 날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4 여름성경학교와 다음세대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0:14)

주님, 7월에 준비되는 여름성경학교와 다음세대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이들의 웃음 속에 주님의 기쁨이 흐르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복음이 마음 깊이 심기게 하소서. 주님,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프로그램이 많아도 중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한 아이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품는 인내를 주옵소서.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빨리 풀리게 하시고, 기도로 먼저 정돈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세상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친구 관계와 미디어 속에서 흔들릴 때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교회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도 새롭게 세워 주세요. 바쁜 일정 때문에 신앙교육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예배가 어렵다면 아주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세대는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한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평생 복음의 기준을 붙들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함께 걷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5 수련회와 청년의 결단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주님, 7월 수련회와 각 부서의 영적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일정과 분위기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특히 청년들과 다음세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세상에서 비교에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죄책감만 남는 회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리더들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로 지친 손을 위로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며, 이동과 숙소와 식사 전 과정에 주님의 보호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만 뜨겁고 금세 식는 마음을 경계하게 하소서. 수련회가 끝난 뒤에도 예배와 공동체, 말씀묵상과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시고, 작은 실천 하나라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여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잠깐의 결심이 아니라 지속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6 휴가철 가정 회복과 관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에베소서 4:32)

주님, 7월 휴가철에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 그 틈을 원망이 아니라 치유의 기회로 바꿔 주소서. 주님, 말로 상처 주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굴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주옵소서. 감정이 앞설 때 한 박자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경제적 부담과 일정의 스트레스도 주께 맡깁니다. 큰 여행이 아니어도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작은 산책, 함께 먹는 한 끼,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옵소서. 가족 가운데 병든 이가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세요. 돌봄을 감당하는 이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공동체의 도움을 겸손히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이 완벽해지길 구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7월의 쉼이 관계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집이 가장 편안한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7 일터의 땀과 성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주님, 7월의 일터와 현장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는 손과 발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직장과 사업터에서 겪는 압박과 불안을 주께 맡깁니다. 성과와 평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정직을 지키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농어촌과 현장 노동으로 여름을 건디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필요한 휴식과 보호 장비가 마련되게 하소서. 일손이 부족한 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책임감과 친절함, 약속을 지키는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동료의 어려움을 알아채 함께 짐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친 마음에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일터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8 병상과 마음의 치유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시편 103:3-4)

주님, 7월에도 병상에서 하루를 건디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쉽게 어두워집니다. 주님, 그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사의 손길과 의료진의 판단 위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통증과 불안이 커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게 하소서. 간병과 돌봄을 감당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치고 예민해질 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병도 만져 주세요. 잠 못 이루는 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을 길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완전한 치유가 더딜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대표 기도문 모음 (7월)9 나라와 교회, 평안과 회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9)

주님, 7월의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불신이 커질수록 마음이 쉽게 편을 가르고 미워하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의 분열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길로 평안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바른 두려움을 주옵소서. 권력과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약한 이들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공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이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정적이 손해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말과 태도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먼저 돌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장로, 리더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 주며, 상처 난 관계가 화해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게 하시고, 선교지와 작은 교회, 병상과 직장과 학교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사랑의 실천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7월의 모든 날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더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료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